

“광주 인근지역 인구소멸 예상… 대책 세워야”

오늘 도시재생 심포지엄

김향집 교수 사전 자료 발표

문화전당·혁신도시 연계 필요

광주시 주변에 ‘인구소멸 예상지역’이 포함돼 있어 광주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광주대학교 김향집 교수는 광주시청에서 예정된 ‘도시재생 심포지엄’(24일)에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회순과 답양 등 광주 인근 지역의 인구소멸이 예상되기 때문에 광주시의 도시계

획에도 이 같은 주변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향집 교수는 ‘뉴딜에 대응한 광주시 도시재생 방향’을 주제로 한 기초조연 자료를 통해 ‘문화전당 및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도시형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의 상호 보완적 연계가 필요하고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와 재생연계를 통해 문화예술인촌, 스마트 도시재생, 광주문화 가상체험, 미디어아트산업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도 연계 재생방안으로 비엔날레 등 문예프로그램을 활용해 전통문화공

간 및 체험프로그램, 공예산업, 친환경 6차 산업, 특화된 주거단지 조성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한국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모델의 도시재생 사례를 분석하고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심포지엄에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민,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기조강연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충북대 황희연 교수)을 비롯해 ▲‘뉴딜과 상임가로 중심의 도시재생’(연세대학교 이재선 교수) ▲‘뉴딜과 마을중심의

도시재생’(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성남 센터장)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중앙대학교 배용규 교수) 등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류영국 지오시티 대표, 박태원 광운대 교수, 안평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이민석 전남대 교수, 이정기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성구 도시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해 광주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광주시의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고 쇠퇴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명화시계·버킷리스트 만들기

사직도서관 29일·12월6일

광주시립사직도서관은 오는 29일과 12월6일 오후 4시부터 도서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초등학생과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겨울 특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9일에는 ‘미술을 보고 듣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림 그리기는 아이 김홍도’라는 책을 주제로 명화를 감상하고 명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뒤 각종 게임을 하면서 명화시계를 만드는 체험 행사다.

또 12월6일에는 ‘존 아저씨의 꿈의 목록’이라는 책을 주제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하루의 가치와 미래 설계를 해보며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버킷리스트 북 만들기’를 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21일부터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22일~23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벗바리와 함께 자립생활실천, 이음캠프’를 진행했다. <광주복지재단 제공>

장애 딛고 사회 진출한 선배들의 조언

사회복지시설에서 살던 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솔한 편견, 보이지 않는 사회의 벽과 싸워야 한다. 이에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이) 자립에 나선 중증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복지재단은 23일 “광주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지난 22일~23일 나

주 중흥골드스파에서 ‘벗바리와 함께 자립생활실천, 이음캠프’를 했다”고 밝혔다.

“벗바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후원을 해주는 사람을 뜻하며 이번 이음캠프에는 먼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과 자립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들이 인연의 끈을 맺는 자리가 됐다.

이음캠프에는 장애인 40여명과 활동보조인 30명, 행사진행자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멘토와 멘티 장애인은 총 21개 팀을 구성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번 이음캠프는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사업’에 포함돼 있는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이며,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또 이음캠프에서 인연을 맺은 자립생활 선배 동료장애인의 경험과 조언을 듣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남광주밤기차야시장 내일 개장 1주년 행사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이 개장 1주년을 맞아 풍성한 기념행사를 연다.

광주시 동구는 “남광주밤기차야시장 개장 1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다채로운 준비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념행사는 ▲클레이, 미니블록 등 무료 체험 행사 ▲록밴드 버스킹 공연 ▲100만 원 상당의 음식쿠폰·할인권 추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수확능력시험 수험표를 지참한 학생들을 우선 추첨할 예정이다. 이동형 판매대 30팀, 푸드트럭 10팀 등

40개 팀으로 구성된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은 남광주시장이 갖고 있는 지리·문화적 자원을 스토리텔링해 지난해부터 매 주말 열고 있다. 남도 수산물을 특화한 향토음식점과 이색적인 이국요리를 선보이는 푸드트럭 등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야간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판매대 청년상인 비율이 70%에 달해 전통시장인 남광주시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한편,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동구 가족음악제 참가팀 27일까지 모집

12월23일 동구문화센터 공연

광주시 동구가 다음달 23일 동구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리는 ‘광주 동구 가족음악제’ 참가자(팀)을 모집한다.

음악단체 (샤어썸오케스트라&콰이어)가 주최·주관하고 동구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제는 세대 간 화합의 장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 모집은 오는 27일까지이며 노래, 악기 등 음악적 재능을 가진 2인 이상의 가족·친구·연인으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단, 팀원 중 1명은 동

구에 한 달 이상 거주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선을 거쳐 10개 팀을 최종 선발하며 대상 1팀 100만 원, 최우수상 1팀 50만 원, 우수상 1팀 30만 원, 장려상 2팀 20만 원, 참가상 5팀에 10만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동구 홈페이지(www.donggu.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62-481-9833) 또는 이메일(piano6780@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08-24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말바우 시장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광주시 북구 제공>

말바우시장 소식은 전파를 타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개국 특집 생방송

말바우 전통시장에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한다.

광주시 북구는 “24일 오후 3시 말바우시장 만남의 광장에 신설된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방송인 노희설씨와 말바우 라디오 제작단이 개국 특집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송국은 20㎡ 규모의 라디오 부스를 설치하고 소규모지만 음향시설과 송출장치, 스피커 등 방송시스템을 갖췄다. 송출 방송은 말바우시장(6만 8000여㎡ 규모) 곳곳에서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을 이끌어갈 말바우 라디오 제작단은 10여명의 말바우 시장 상인으로 구성됐다. 지난 2일부터 지역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

는 진행자, 작가, PD를 강사로 초청해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원고 작성, 음악 선곡, 진행 노하우 등을 꾸준히 교육받고 있다.

방송은 오는 12월까지의 지정날, 노희설, 황정숙 등 전문 DJ와 함께 장날(매월 날짜가 2·4·7·9로 끝나는 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한다.

개국행사는 초대 가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시장 상인들과 직접 전화연결을 통해 말바우 시장 곳곳의 생동감 있는 현장분위기를 전달한다. 또 말바우 라디오 제작단이 출연해 개국 준비과정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소개하며 축하공연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첫 기술사 2관왕 탄생

김홍규 토목팀 대리

광주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 최초로 기술사 2관왕이 탄생했다. 공사는 23일 “토목팀 김홍규 대리(44·사진)가 ‘토질및 기초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 ‘토목시공기술사’ 취득에 이어 기술사 2관왕에 올랐다”고 밝혔다.

토질및기초기술사는 지하공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기술을 겸비한 이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이번 제 113회 토질및기초기술사시험은 광주 전

남에서 단 3명이 합격했다.

김 대리는 지난 2004년 공사에 입사, 토목구조물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전문성을 쌓아간 중 2009년 토목시공 기술사에 합격했다. 이후 다시 토질및기초기술사에 도전, 준비 5년 만에 기술사 2관왕이 됐다.

김 대리는 “현장 경험이 쌓여갈수록 이 노하우를 갖고 다들어 공사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 높아져 갔다”면서 “끊임없는 역려와 관심으로 응원해준 가족과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광주도시철도의 기술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